잊혔던 고려 중도종·도문종 재조명

〈中道宗〉 〈道文宗〉

김영일 · 민순의, 〈한국불교학〉 제97호서 논문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사 안에서는 다양한 종파가 나타나고 사라졌다.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고려시대에서 숭유억불의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당시 다양했던 불교 종파에 대한 국가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졌다. 이는 〈태종실록〉 6년 3월 27일자 기사에서 확인된다.

"조계종(曹溪宗)과 총지종(摠持宗)은 합하여 70사(寺)를 남기고, 천태종(天台宗)·소자종(疏字宗)·법사종(法事宗)은 합하여 43사를 남기고, 화엄종(華嚴宗)·도문종(道文宗)은 합하여 43사를 남기고, 자은종(慈恩宗)은 36사를 남기고, 중도종(中道宗)·신인종(神印宗)은 합하여 30사를 남기고, 남산종(南山宗)·시흥종(始興宗)은 각각 10사를 남길 것입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11개의 종파가 확인되는데, 활발한 활동을 한 4개의 종파와 군소종파 7곳이 구성돼 있다. 이중 중도종과 도문종은 한국불교사를 통틀어 유일하게 언급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불교학〉 제97호에서는 1700년 한국불교사에서 단 한 줄 등장했던 중도종과 도문종을 재조명하는 논문인 '고려시대 중도종 연구(김영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외래교수)', '도문종 연구를 위한 일(一) 가설(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이 발표됐다.

이들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중도종 등 군소종파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는 선행연구는 1937년 발표된 김영수의 '오교양종에 대하여'가 그 시작이다. 당시 김영수는 해동종은 법성종(法性宗)이고, 이는 동시에 중도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대 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재열(이재병)은 자신의 저서 〈조선불교사의 연구(1946)〉에서 "유가종의 후신이 중도종이며, 해동종의 후신이 도문종"이라고 새롭게 주장했다.

허흥식도 '미약하나마 해동종과 도문종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봤으며, 김영태 역시 '해동종은 종파이고 법성종은 학파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연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김영태는 '유가종의 후신이 중도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봤다. 그에 따르면 신라시대 '유가(瑜伽)'는 교학 중심의 법상 유가와 수행 중심의 밀교 유가로 나눠 사용됐는데, 고려시대에 법상 유가는 유가업이 되고 밀교 유가는 신인종과 총지종이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상의 유가는 고려 초·중기 유가업을 거쳐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은종'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7년 전북 완주 경복사지에서 출토된 '중도종' 명문 기와와 탁본. 역사에서는 한 줄만 기록된 '중도종'의 사찰로 경복사가 활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태종실록〉 6년 기사서만 언급
당시 11개 종파들 존재 추정 돼
"중도종, 삼론종 영향" 첫 주장
도문종, 정토신앙 연계된 종파

이처럼 군소종파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괭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은 새로운 학설들을 제기했다. 김영일 외래교수는 "중도종은 중국 삼론종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종파"라고 봤다.

그는 태종 6년의 실록 기록에 나타난 11개 불교종파의 사상적 기원을 분류했다. 이를 살펴보면 시흥종은 인도 소승학, 인도 남산종은 계율학, 자은종은 인도 유식학, 신인종은 인도 밀교학(신밀), 총지종은 인도 밀교학(구밀)으로 각각 연결된다. 소자종과 법사종은 중국 천태학, 화엄종은 중국 화엄학, 조계종은 선종학, 도문종은 한국 원효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중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중관학'이 누락돼 있다는 게 김 외래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중관학에 사상적 연원을 둔 중국 삼론종을 주목했다. 삼론종의 법맥 중 승랑은 고구려 출신으로 종파 성립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김 외래교수는 "중도종은 인도 대승불교의 중관학에 뿌리를 두고 중국에 와서는 삼론종으로 번성하다가 한반도에 와서는 주로 고구려에서 활동했다. 그 뒤 고려시대에서는 교세가 위축됐을 것"이라며 "여말선초에 이르러서는 '중도종'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역사 속에 얼굴을 비췄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순의 연구원은 화엄종과 통합된 도문종에 대해 종파명인 '도문'에서 정토신앙과의 연관성을 찾았다. 또한 신라 화엄종부터 이어진 정토신앙의 연결성을 조명하고 도문종과 화엄종의 통합 요인을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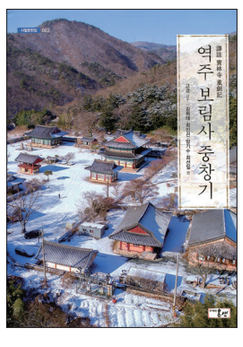
그는 중국 수~당대 활동한 도작(562~645)이 〈안락집〉에서 불교의 일대 교설을 성도문(聖道門)과 정토문(淨土門)으로 나눈 정토교판을 주목했다. 성도문은 스스로 번뇌를 소멸해 성인이 되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자력신앙의 길이고, 정토문은 아미타부처의 원력에 힘입어 해탈에 이르는 난이도가 낮은 타력신앙의 방법이다. 도작은 말법시대에 성불 방법으로 정토문을 주장했다.

민 연구원은 "정토교판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면 자력행과 성도문이 부정적이기보다는 가치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됐을 수 있다"며 "만일 그들이 교학 연구의 고도로 지적인 불도 수행을 추구한 불교 엘리트들이었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추정했다.

이어 "도문종의 '도문'은 '성도문'의 약칭이었을 것"이라며 "스스로 성인이 될 수 있는 성스러운 '진리의 문(道門)'으로서 성도문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불가능한 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림사 중창 180년사 기록하다

장흥문화원, 20년 만에
〈보림사 중창기〉 증보판
180년간 246회 불사 기록
조선후기불교사 중요 자료
논문 · 유리건판 사진 추가



전남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 보림사는 체징 스님이 860년 개산한 가지산파의 중심사찰이다. 보림사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이를 잘 증명하는 것이 사찰 중창에 대한 기록이다. 약 200년에 가까운 보림사의 중창 기록을 망라한 자료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장흥문화원(원장 고영천)은 최근 〈역주 보림사 중창기〉 증보판을 발간했다. 지난 2001년 발간 이후 20년 만에 재발간된 〈역주 보림사 중창기〉는 보림사 중창기 역주부터 취변록 역주, 보림사 연표·역대 주지·사진 등의 부록, 관련 연구 논문 등이 수록됐다. 또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 현봉 스님이 역주한 '신라국 무주 가지산 보림사 사적'도 담겼다.

〈역주 보림사 중창기〉 증보판의 감수는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이 맡았으며, 편자로는 김희태 前 전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최인선 순천대 사학과 교수, 양기수 장흥향토사연구회장,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참여했다.

현재 해남 대흥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보림사 중창기〉는 가로 29.7cm, 세로 41.7cm, 총 201면으로 책의 표제는 〈신증장흥여지승람〉이라고 돼 있지만, 그 내용은 보림사 중창 기록이 대부분이다.

〈보림사 중창기〉는 1658년부터 1838년까지 180년동안 보림사에서 이뤄진 총 246회의 중창 불사를 기록해 놓고 있다. 중창기의 기록은 매우 세세하고 꼼꼼하다. 각종 건물의 중수나 신축, 단청, 번와, 부도, 범종, 불상, 석탑, 불기(佛器), 불화 등 각종 불사 내용과 시주, 공사, 권화, 목수, 화원, 장인, 화주, 주지 등 참여자 명단을 별도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각종 불사에 어떤 인물들이 참여하고, 어떤 건물·불상·불화 등이 중수되거나 조성됐는지를 알 수 있다. 실제, 180년간의 불사에는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고 총 883인이 참여했으며, 50인의 역대 주지 명단도 확인된다.

또한, 고법당 불사는 20회, 신법당 불사는 13회, 단청 불사는 18회, 번와 불사는 16회가 각각 확인된다.

편자로 참여한 김희태 前 전남도 문화재위원은 자료집에 수록된 '조선 후기 〈장흥 보림사 중창기〉 고찰'을 통해 "180년간 246회에 걸쳐 사찰의 중창 불사를 기록한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 "사찰지나 사적기도 사찰 연혁과 중수 기록을 담고 있지만, 일정 시점에서 자료를 집성해 편집한 자료라는 점에서 그때 그때 불사 기록을 정리한 중창 기록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부여군,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사업 전개

미디어 파사드 구축… 문화재 야행 등 활용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세계유산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활용사업을 활발히 펼친다.

부여군은 "코로나19의 전 국민 예방접종으로 하반기에 집단 면역을 기대하며 올 가을철을 겨냥,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4월 13일 밝혔다.

부여군은 먼저 세계유산 미디어 파사드 구축사업을 가을철 예정된 3대 축제인 세계유산축전, 문화재 야행, 백제문화제 기간에 함께 진행한다. 세계유산 미디어 파사드 구축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방된 야외 관람형 콘텐츠 필요성에 따라 기획됐다.

부여군은 세계유산 미디어 파사드 구축을 통해 정림사지에 미디어 IT 기술을 접목해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젝션 맵핑(사물의 표면에 영상을 투사), 인터랙티브(쌍방향) 아트 등 새로운 콘텐츠를 구축한다. 또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디어 아트쇼를 구현해 야간 경관 및 볼거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17일 동안 부여군과 공주시, 익산시가 동시에 개최하는 세계유산축전은 부소산성 및 관북리유적,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등 부여군이 보유한 세계유산 4곳에서 새로운 볼거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여군은 9월 초에는 정림사지와 석탑로, 관북리 유적 일대에서 '백제 달빛 아래 사비 밤 마실'을 주제로 문화재 야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정기월례학술대회

5월 7일 줌 통한 화상회의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방룡)은 5월 7일(금) 오후 2시 줌(Zoom)을 통해 제136차 정기월례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날 월례학술대회는 비교종교학, 불교경제학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강지언 박사(서울대)는 '비교종교학으로 본 초기선종의 수행과 근대 불교학의 수행연구- 〈돈오입도요문론〉을 중심으로'를, 김성옥·이상호 교수(동국대 다르마칼리지)는 '불교와 자연, 그리고 불교경제학·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를 중심으로'를, 최선일 문화재감정위원(문화재청)은 '순천 송광사 천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조각승 석삼'을 각각 발표한다.

학술대회 논평자로는 마해륜 강사(고려대), 이명호 강사(중앙승가대), 신해스님(동국대)이 참석한다.

신성민 기자



나이가 들어가며 염불이 점점 힘들어지는 스님들에게 마이크와 2m 떨어져 지극히 작은 염불에도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를 만들어 신명나는 본사 견본으로 소리 비교만 해보세요!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 시설들과 장난감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